

# 李白의 憂國精神

—安史의 亂을 前後한 李白의 悲運—

張 基 權\*

## 1. 長安을 떠난 후의 苦惱

長安의 宮中生活은 李白에게는 너무나 失望的이었다. 黯黑과 腐敗, 權臣들의 凶謀에 嘔吐를 느낀 李白이었다. 따라서 그는 「高歌大笑」하며 長安을 나왔던 것이다. 李白의 벗 任華는 「雜言寄李白」에서 『權臣妒盛名, 羣犬多吠聲。有勅放君却歸隱淪處, 高歌大笑出關去。』라 했다. 權臣들이 妬忌하고 개들이 지저뎠다고 했다. 李白은 다음 같이 읊었다. 『葳蕤紫鸞鳥, 巢在崑山樹。驚風西北來, 飛落南溟去。早懷經濟策, 特受龍顏顧。白玉棲青蠟, 君臣忽行路。<sup>(1)</sup>』 석파리가 白玉에 앉아 더럽히듯 清白한 自己에게 讒寃함으로써 君臣이 갈라졌다. 또한 『遭逢聖明主, 敢進興亡言。白璧竟何辜, 青蠅遂成寃。一朝去京國, 十載客梁園。』<sup>(2)</sup> 『輕塵集嵩嶽, 虛點盛明意。謬揮紫泥詔, 獻納青雲際。讒惑英主心, 恩疎佞臣計。彷徨庭闕下, 歎息光陰逝。未作仲宣詩, 先流賈生涕。』<sup>(3)</sup> 라고도 했다.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中國文學)

(1) 贈溧陽宋少府陟

(2) 書情贈蔡舍人雄

(3) 答高山人兼呈權顧二侯

원래 李白은 事君報國하야 「安社稷」「濟蒼生」하기를 平生所願으로 渴望했다. 물론 功名이나 利祿을 위해서는 아니었다. 功成身退하겠다는 表情 뿐이었다. 『終與安社稷, 功成去五湖。』<sup>(4)</sup> 『方希佐明主 長揖辭成功。』<sup>(5)</sup> 『功成拂衣去, 搖曳滄州旁』<sup>(6)</sup> 『待吾盡節報明主, 然後相携臥白雲。』<sup>(7)</sup> 따라서 長安을 떠난 李白은 비록 「高歌大笑出關去」했으나 일면 『我本不棄世, 世人自棄我』<sup>(8)</sup> 의 억울함이 짙었다고 하겠다.

李白은 원래 二律背反的인 兩極의 思想을 지니고 있었다. 積極的인 現實參與, 兼濟天下의 儒家思想과, 消極的인 隱退脫俗, 無爲獨善의 道家思想이다. 그러나 우리는 明白히 알아야 하겠다. 李白의 隱退脫俗의 道家思想이 表面에 나타나는 것은 暗黑과 腐敗에 絶望한 끝에 求仙學道 함으로써 自己만이라도 獨善己身하자는 貴生之道의 精神을 實踐하려는 뜻이며, 이는 바로 惡에 抗拒하고 惡으로부터 自己만이라도 解脫하자는 自由와 解放의 消極的인 姿勢인 것이다. 李白은 말했다. 『達則兼濟天下, 窮則獨善一身。』<sup>(9)</sup> 더욱이 그는 끝까지 社會參與를 하지 않은 靜默의 隱者 鄭樸(字는 子眞)을 다음과 같이 批判했다. 『谷口鄭子眞, 躬耕在巖石。高名動京師, 天下皆藉藉。斯人竟不起, 雲臥從所適。苟無濟代心, 獨善亦何益。』<sup>(10)</sup>

여기서 우리는 李白이 점차로 前보다 더욱 矛盾과 苦痛에 빠져들고 있음에 주의해야 하겠다. 長安을 떠난 후, 李白에게는 政治的 理想을 具現할 希望보다는 絶望이 더욱 짙어졌던 것이다. 第一義的인 「立功建業」의 뜻을 버리고 부득불 第二義的인 「獨善無爲」란 虛脫속에 머물러야

(4) 贈韋秘書子春

(5) 東武吟

(6) 玉眞公主別館苦雨贈衛尉張卿(其二)

(7) 駕去溫泉宮后贈楊山人

(8) 送蔡山人

(9)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

(10) 贈韋秘書子春

하는 그의 심정은 괴로웠다. 積極的인 大義를 박탈 당하고 消極的인 小節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그는 마치 날개쪽찌를 꺾이고 땅에 떨어져 어둡고 좁은 우리에 갇힌채로 목숨만을 부지하고 있는 大鵬과도 같이 悽慘하고 淒涼했다. 강물 흐르듯 넘치고 덮치는 愁心은 술로도 건잡을 수가 없었다. 『抽刀斷水水更流，舉杯銷愁愁更愁。』<sup>(11)</sup> 自負와 豪蕩에 넘친 李白에게 이보다 더한 苦惱가 있겠는가? 그의 「行路難」에는 이러한 心情이 잘 나타났다.

「金樽清酒斗十千，玉盤珍羞直萬錢。  
 停杯投筋不能食，拔劍四顧心茫然。  
 欲渡黃河水塞川，將登太行雪滿山。  
 閑來垂釣碧溪上，忽復乘舟夢日邊。  
 行路難，行路難。多岐路，今安在。  
 長風破浪會有時，直挂雲帆濟滄海」

『한가히 벽계에 낚시 드리운채, 홀연 배타고 다시 한번 태양인 천자 결으로 가는 꿈을 꾸드라 (閑來垂釣碧溪上, 忽復乘舟夢日邊)』 「行路難」에 困苦하면서도 꿈과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李白이었다. 第二首에서는 高邁한 抱負와 卓越한 學才를 지닌 자기가 市井에 「문려 小人輩들에게 놀리고 있다. 자기를 알아줄 賢君이 없음을 失望하고 있다. 특히 燕의 昭王이 人材를 아끼고 잘 登用하여 齊를 친 例를 들어 玄宗의 暗愚를 諷諫하고 있다.

#### 行路難(其二)

「大道如青天，我獨不得出。  
 羞逐長安社中兒，赤雞白狗賭梨栗。  
 彈劍作歌奏苦聲，曳裾王門不稱情。  
 淮陰市井笑韓信，漢朝公卿忌賈生。」

(11) 宣州謝朓樓餞別校書叔雲

君不見昔時燕家重郭隗，  
 擁簪折節無嫌猜。  
 劇辛樂毅感恩分，輸肝剖膽效英才。  
 昭王白骨縈蔓草，誰人更掃黃金臺。  
 行路難，歸去來。」

昭王이 간지 千餘年, 아무도 黃金臺를 찾아 쓸지도 않으니 絶望이다. 갈걸 험하고 어려우니 차라리 물러나 明哲保身이나 하자고 읊은 李白은 第三首에서는 『공을 이룩한 후에 물러나지 않아, 자기 목숨을 잃었노라, (功成不退皆殞身)』 가을 바람에 제 故鄉의 순나물과 농어의 생각을 하고 벼슬 내 던지고 돌아간 張翰을 따라 『우선 살아 생전의 술 한잔을 즐기, 구태여 죽어 천년 후의 이름 내길 기다릴꺼냐(且樂生前一杯酒, 何須身後千載名)』하며 隱退行樂을 다짐했다.

長安을 떠난 李白이 총총히 齊州 紫極宮으로 가서 北海 高天師로 부터 道籙을 받은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李白으로 하여금 現實을 버리게 한 절대적인 原因은 當時의 政治와 當權者들이 暗黑과 惡德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었다.

## 2. 唐帝國의 腐敗와 李白의 憤懣

李白이 長安을 떠난 후로 唐帝國은 눈에 보이게 내리막 길로 줄다름치고 있었다. 일찌기 英明했던 玄宗도 在位 三十年이라, 政事에 물렸고 아울러 老衰한 그는 寵妾 楊貴妃와 더불어 歌舞酒宴에 沉溺하여 國事를 奸相 李林甫에게 맡기어 날로 暗黑과 腐敗가 더했다. 李林甫는 「口有密, 腹有劍」이라는 奸凶한 자로 원래가 無識한 그는 賢臣學者들을 排斥했으며, 李邕, 裴敦復, 皇甫惟明, 李適之 등의 高明한 忠臣들을 謀殺했고, 淸貞한 人材의 登用도 積極막았다. 天寶 六年 玄宗이 人材를 새로

求하라고 하자 그는 野無遺賢이라 했다. 『欲廣求天下之士，命通一藝以上皆詣京師。李林甫恐草野之士對策，斥言其奸惡，……遂無一人及第者。林甫乃上表賀野無遺賢。』<sup>(12)</sup> 杜甫가 연거퍼 落榜의 苦杯만을 마신 것도 奸惡한 李林甫 때문이었다. 一方 李林甫는 楊貴妃, 高力士, 安祿山, 楊國忠들과 結탁하여 唐帝國의 專權을 휘두르고 暗黑의 陰謀政治로 國家와 百姓을 危亡으로 줄다름치듯 墜落시키고 있었다. 이에 非常한 政治的 關心을 갖고 아울러 透徹한 歷史觀과 愛國愛族의 情熱에 넘치는 李白이 크게 憤懣하고 慨嘆했음은 당연하다.

「殷后亂天紀，楚懷亦已昏。  
 夷羊滿中野，荼蕘盈高門。  
 比干諫而死，屈平竄湘源。  
 虎口何婉變，女須空嬋娟。  
 彭咸久淪沒，此意與誰論。」(古風 其五十一)

憤怒한 李白은 詩에서 玄宗을 殷의 紂王이나 楚의 懷王같은 昏君에 比喩했으며, 忠諫하던 比干이나 屈原을 죽이고 쫓임으로써 國家가 危亡했음을 大膽하게 지적하고 있다.

李林甫에게 被殺된 李邕은 杜甫와 같이 李白이 찾아가 厚待를 받고 詩文을 論談한 先輩高官이었다. 李白은 李邕이나 裴敦復의 被殺을 다음 같이 悲憤했다.

『君不能狸膏金距學鬪雞，  
 坐令鼻息吹虹霓。  
 君不能學哥舒橫行青海夜帶刀，  
 西屠石堡取紫袍。  
 吟詩作賦北窓裏，萬言不直一杯水。  
 世人聞此皆掉頭，有如東風射馬耳。』

(12) 通鑒(卷215)

魚目亦笑我，請與明月同。  
 驂騮拳跼不能食，蹇驢得志鳴春風。  
 折楊皇華合流俗，晉君聽琴枉清角。  
 巴人誰肯和陽春，楚人由來賤奇璞。  
 黃金散盡交不成，白首爲儒身被輕。<sup>(13)</sup>』

宮中에서는 鬪雞輩나 躡武窮兵하는 哥舒翰 같은 졸짜들이 得勢하고 白首가 되도록 學問을 한 儒學者가 輕視되고, 高邁한 詩文은 받아들여 지지 못하여, 價値가 顛倒된 社會라, 周 武王의 名馬 驂騮가 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도리어 절록발이 나귀가 春風에 뜻을 이룩하고 意氣揚揚 울어대고 있다고 恨嘆하고 이어 李白은 『너절한 놈들 소인배는 우리네 말 한마디나 웃음 한번에도 놀라 자빠지고, 더욱이 쉬파리나 패금같이 걸으로 번쩍이는 벼슬아치놈들은 시끄럽도록 남을 훼방하는 참언을 뿌려댄다. 증삼이 살인했다는 터무니 없는 말도 세번 거듭하여 참언하자 친어머니도 놀라 도망치더라(一談一笑失顏色, 蒼蠅貝錦喧謗聲, 曾參豈是殺人者, 讒言三及慈母驚。)』<sup>(14)</sup>이라 쉬파리나 우짖는 개들같은 小人輩 奸臣들의 讒言을 憎責했다. 善惡이나 是非를 顛倒하고, 讒言으로 良才를 死亡에 몰아 넣는 暗黑謀略政治에 너들머리를 낸 李白이었다. 그런 시궁창 속에서는 『達亦不足貴, 窮亦不足悲』<sup>(15)</sup>라 하고 李邕와 裴敦復의 悲慘을 드러내고 썩은 政治社會에서 물러날 것을 다짐했다. 『君不見李北海, 英風豪氣今何在。君不見裴尚書, 土墳三尺蒿棘居。少年早欲五湖去, 見此彌將鍾鼎疎。』<sup>(16)</sup>』

특히 奸臣들이 專權橫行하는 꼴을 본 李白은 銳利하게 唐皇帝의 危急을 다음같이 내다보기도 했다.

(13) 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

(14) 同上

(15) 同上

(16) 同上

「戰國何紛紛，兵戈亂浮雲。  
趙倚兩虎鬪，晉爲六卿分。  
姦臣欲竊位，樹黨自相羣。  
果然田成子，一旦弑齊君。」(古風 其五十三)

『日慘慘兮雲冥冥，  
猩猩啼煙兮鬼嘯雨。  
我縱言之將何補，  
皇穹竊恐不照余之忠誠。  
雷憑憑兮欲吼怒，堯舜當之亦禪禹。  
君失臣兮龍爲魚，權歸臣兮鼠變虎。』<sup>(17)</sup>

安祿山の 跋扈를 예리하게 내다보고 있다. 果然 唐王朝는 社會的 矛盾이 露呈되기 시작했다.

昏庸하게 된 玄宗이 無能하고 奸凶한 李林甫나 楊國忠에게 國權을 맡긴 結果 唐은 內部로부터 社會的 矛盾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장 큰 矛盾은 土地政策과 節度使의 問題였다. 唐은 初期에 均田制를 實施하여 農民들의 生産意慾을 높였고, 事實上으로 社會發展의 바탕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점차로 貴族과 官僚들의 土地兼併과 아울러 租庸調만은 土地를 빼앗긴 農民들에게 加重됨으로써 統治階級과 農民의 對立, 隔差가 激甚해졌다. 中央政權이 無能 腐敗함에 따라 地方邊境의 節度使들이 遊離되고 勢大해져 갔다. 게다가 大部分의 節度使들은 漢族이 아닌 外族의 血統을 가진 番將들로 充當되었었다. 따라서 中央과 邊境의 對立을 漢族과 外族의 對立으로 변모해 갔다. 安祿山이나 그의 部下들도 胡族이 있었다. 이상의 커다란 社會的 內部矛盾 內外에도 爲政者의 腐敗와 浪費는 百姓들로부터 苛斂誅求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一方 黷武窮兵 政策은 直接的으로 人民의 生命과 平安을 破壞했다. 이러한 破局的인 樣相에 대하여 李白은 몹시 憤懣했다.

(17) 遠別離

우선 李白은 玄宗을 비롯하여 宮中에 있는 統治者들의 無能・腐敗・墮落・荒淫을 신랄하게 攻迫했다.

『雞鳴海色動，謁帝羅公侯。  
月落西上陽，餘輝半城樓。  
衣冠照雲日，朝下散皇州。  
鞍馬如飛龍，黃金終馬頭。  
行人皆辟易，志氣橫嵩丘。  
入門上高堂，列鼎錯珍羞。  
香風引趙舞，清管隨齊謳。  
七十紫鸞鴛，雙雙戲庭幽。  
行樂爭晝夜，自言度千秋。<sup>(18)</sup>』

高官들의 傲慢과 奢侈와 逸樂을 寫實的으로 그린 李白은 詩의 앞과 뒤에 『新人非舊人，年年橋上遊。』 『功成身不退，自古多愆尤。』라고 警覺心を 불러 일으키고자 했다. 또한 李白은 별것도 아닌 中貴가 호사하고 鬪雞者가 활기를 치는 터무니 없는 社會, 堯舜같은 聖人과 盜跖같은 惡人の 分別이 없는 社會를 규탄하고 있다.

「大車揚飛塵，亭午暗阡陌。  
中貴多黃金，連雲開甲宅。  
路逢鬪雞者，冠蓋何輝赫。  
鼻息干虹蜺，行人皆怵惕。  
世無洗耳翁，誰知堯與跖。<sup>(19)</sup>」

『誰知堯與跖』 하고 한탄한 李白은 더욱 極端的으로 『賣珠輕薄兒』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宮中 出入을 하면서 驕慢하고 奢侈・安逸하는 데 비해 揚雄이 얼마나 刻苦했으면서도 끝내 잘 되지 못하고 도리어 조 무래기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가 하는 시를 지었다. 즉 李白은 宮中에

(18) 古風 其十八

(19) 古風 其二十四

드나드는 無能한 자들을 옥하면서 一面 懷才不遇한 선비들을 위해 탄식하고 있다.

「威陽二三月，宮柳黃金枝。  
 綠幘誰家子，賣珠輕薄兒。  
 日暮醉酒歸，白馬驕且馳。  
 意氣人所仰，冶遊方及時。  
 子雲不曉事，晚獻長楊辭。  
 賦達身已老，草玄鬢若綠。  
 投閣良可歎，但爲此輩嗤。<sup>(20)</sup>」

이렇듯 小人輩들이 得勢하고 有能懷才의 선비가 쫓겨난 큰 責任은 바로 李林甫에게 있다. 『林甫恃其早達，輿馬被服，頗極鮮華。自不學無術，僅能秉筆。有才名於時者，尤忌之。<sup>(21)</sup>』 이렇듯 李林甫傳에 그의 모습이 記錄되어 있다. 따라서 宮中에 드나드는 이른바 權貴들은 즐거워 많이 있었고, 따라서 그자들은 더욱 限下無人格으로 驕慢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역질 나는 權貴들을 견어차고 나온 李白이 絶望에 빠지는 것은 當然했다. 李白의 絶望은 때나 장소를 넘어 어느 社會에 있어서나 合汚同流하지 못하는 高潔한 人士가 맞보는 絶望인 것이었다. 더욱이 「安社稷」 「濟蒼生」 하겠다는 懷才之士가 國家와 百姓을 暗黑 속에 몰아 넣는 奸臣輩들의 讒言에 물리어 쫓겨나다니 더욱 憤痛스러웠다. 이 모두가 玄宗이 昏庸해서다.

「倚劍登高臺，悠悠送春日。  
 蒼榛蔽層邱，瓊草隱深谷。  
 鳳鳥鳴西海，欲集無珍木。  
 鸞斯得所居，蒿下盈萬族。

(20) 古風 其八

(21) 舊唐書 一〇六 李林甫傳

晉風日已頹，窮途方慟哭。<sup>(22)</sup>」

이렇듯 現實이 暗黑에 잠기고 前途가 딱 막힐 때, 李白은 現實에서 벗어나 理想 속에 自由의 날개를 펴고 浪漫의 물결을 해치고 求仙脫俗하고자 했다. 長安을 떠나 絶望속에 飄浪하던 그는 家族을 거느리고 嵩山 깊이 隱遁코자 했다.

『家本紫雲山，道風未淪落，況懷丹丘志，冲賞歸寂寞。……爾能折芳桂，吾亦採蘭若，拙妻好乘鸞，嬌女愛飛鶴，提攜訪神仙，從此鍊金藥。<sup>(23)</sup>』

단 여기서 우리는 玄宗이 神仙이 되고자 方士에 迷惑되고 嵩山에서 煉藥한 것을 李白이 辛辣하게 諷刺한 詩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古風 其三에서 『尙採不死藥，茫然使心哀。……徐市載秦女，樓船幾時廻。但見三泉下，金棺葬寒灰。』라고 秦始皇이 長生不死하고자 虛茫했음을 가지고 諷刺했고, 古風 其48에서는 다음 같이 秦皇이 蓬萊島에 있다는 長生不老의 仙藥을 얻고자 國富와 民力을 虛費한 悲劇을 가지고 諷刺했다.

「秦皇按寶劍，赫怒震威神。  
逐日巡海右，驅石駕滄津。  
徵卒空九寓，作橋傷萬人。  
但求蓬島藥，豈思農爲春。  
力盡功不贍，千載爲悲劇。」

여기서도 李白의 道家思想의 限界를 엿볼 수 있다. 즉 窮塞과 暗黑을 벗어나기 위한 求仙學道는 찬성하나 그렇다고 經世濟民과 立功報國을 忘却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李白은 道家思想보다 酣飲高歌하면서 現實的인 苦惱를 잊고자 했던 것이다. 『仙人殊恍惚，未若醉中眞。<sup>(24)</sup>』 『聖賢

(22) 古風 其五十四

(23) 題嵩山逸人丹丘山居

(24) 擬古 十二首 其三

既已飲，何必求神仙。三盃通大道，一斗合自然。<sup>(25)</sup>』 특히 『梁園吟』에서 당시의 李白의 心情을 잘 알 수 있다. 『人生逢命豈暇愁，且飲美酒登高樓』라고 한 그는 같은 詩 끝머리에서 蒼生을 救濟하는데 늦지 않겠노라 했다. 『歌且謠，意方遠。東山高臥時起來，欲濟蒼生未應晚。』 이에 李白은 다시 長安을 바라보고 그리워 한다. 그의 參與와 隱退의 矛盾된 葛藤이 糾잡을 수 없이 交錯했다. 『遙望長安口，不見長安人。長安宮闕九天上，此地曾經爲近臣。一朝復一朝，髮白心不改。<sup>(26)</sup>』 長安을 그리는 마음은 長安으로 부터 온 길을 봐도 미칠듯 李白을 설대이게 했다. 『客自長安來，還歸長安去，狂風吹我心，西挂咸陽樹。<sup>(27)</sup>』 또한 科擧를 보려 長安으로 가는 從弟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自己의 心情을 읊기도 했다. 『魯客向西笑，君門若夢中。霜凋逐臣髮，日憶明光宮。<sup>(28)</sup>』

長安을 이렇듯 그리워 하는 마음은 바로 忠君報國과 經世濟民의 衷情이었다. 天寶十一年(752年) 各地로 떠돌다가 安祿山이 統治하고 있던 幽州에 온 李白은 크게 憤怒했고 國家의 危急을 直感했다.

『十月到幽州，戈鋌若羅星。  
君王棄北海，掃地借長鯨。  
呼吸走百川，燕然可摧傾。  
心知不得語，却欲棲蓬瀛。  
彎弧懼天狼，挾矢不敢張。  
攬涕黃金臺，呼天哭昭王。  
無人貴駿骨，綠耳空騰驤。  
樂毅儻再生，于今亦奔亡。<sup>(29)</sup>』

昏庸한 玄宗이 답답하게 여겨지며, 良馬와 忠臣을 알아 주던 昭王이

(25) 月下獨酌

(26) 單父東樓秋夜送族弟沈之秦

(27) 金鄉送韋八之西京

(28) 魯中送二從弟跡舉之西京

(29) 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遊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

그렇기만 했다. 그렇다고 危機에 처한 祖國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昔攀六龍飛，今作百煉鉛。  
懷恩欲報主，投佩向北燕。<sup>(30)</sup>』  
『日落把燭歸，凌晨向燕京。  
方陳五餌策，一使胡塵清。<sup>(31)</sup>』

당장에라도 가 胡族逆賊을 말끔히 훑치고 싶었다. 그러나 알아 주는 자 없었으며, 一方 朝廷에는 亂軍을 막을 武士들이 없었다. 이 모두가 腐敗의 結果다.

### 3. 黷武窮兵과 護國防禦

李白은 原來 唐皇室의 黷武窮兵을 極口 非難했다. 唐朝는 初期에 있어 外族의 邊境侵略을 防備함으로써 平和를 維持하고 民生에도 크게 害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로 唐朝는 對外的인 侵略과 武功을 위한 戰爭發動으로 莫大한 犧牲을 百姓에게 強要하게 되었고, 이러한 戰爭政策은 자연히 文才를 輕視하고 武人을 偏重함으로써 더욱 國家의 橫暴를 助長하게 되었다. 李白은 古風(十四)에서 哥舒翰이 吐蕃의 石堡城을 攻略할 때에 唐이 입은 損失의 엄청난을 諷刺하고 있다. 李白의 儒家的 平和思想과 老莊의 戰爭排擊思想이 같이 엉키어 發揮됐다고 하겠다. 그는 이 詩에서 匈奴의 侵略을 膺懲함을 當然으로 생각하나, 이에 따른 犧牲의 크음을 恨嘆하고 있다.

「胡關饒風沙。蕭索竟終古。

(30) 蕭宣城宇文太守兼呈崔侍御

(31) 自廣平乘醉走馬六十里至邯鄲登城樓覽古書懷

木落秋草黃，登高望戎虜。  
 荒城空大漠，邊邑無遺堵。  
 白骨橫千霜，嗟殺蔽榛莽。  
 借問誰凌虐，天驕毒威武。  
 赫怒我聖皇，勞師事鞞鼓。  
 陽和變殺氣，發卒騷中土。  
 三十六萬人，哀哀淚如雨。  
 且悲就行役，安得營農圃。  
 不見征戍兒，豈知關山苦。  
 李牧今不在，邊人餽豺虎。」

天寶年間에 들어 玄宗은 더욱 拓邊戰爭을 일으키어 武功 세우기를 즐겼다. 따라서 國庫의 消耗와 人民의 生命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다. 李白은 唐朝의 이러한 黷武窮兵策에 對하여 人民의 편에 서서 크게 憤怒했고, 禍國殃民하는 戰爭政策을 悲痛하게 非難했다. 特히 「戰城南」에서 李白은 無謀한 邊境政略에 犧牲된 百姓에 同情하고, 아울러 決定的인 戰果를 못올리는 無能한 武將들을 暗暗裡에 罵倒하고 있다.

「去年戰桑乾源，今年戰葱河道。  
 洗兵條支海上波，放馬天山雪中草。  
 萬里長征戰，三軍盡衰老。  
 匈奴以殺戮爲耕作，古來唯見白骨黃沙田。  
 秦家築城避胡處，漢家還有烽火然。  
 烽火然不息，征戰無已時。  
 野戰格鬪死，敗馬號鳴向天悲。  
 烏鳶啄人腸，銜飛上挂枯樹枝。  
 士卒塗草莽，將軍空爾爲。  
 乃知兵者是凶器，聖人不得已而用之。」

武力을 濫用함으로써 禍國殃民만 하면서 그래도 조그만한 戰果가 있으면 이를 自己 혼자만 독차지하고 凱旋하며 돌아온 霍嫫姚 같은 將軍에게도 批判의 시를 썼다.

「駿馬似風飄，鳴鞭出渭橋。  
彎弓辭漢月，插羽破天驕。  
陳解星芒盡，營空海霧消。  
功成畫麟閣，獨有霍嫖姚。<sup>(32)</sup>」

戰功을 독차지 하는 것도 罪이겠거늘 敗戰을 숨기고 도리어 戰勝했다고 속이는 天人共怒할 武將들의 罪惡相에도 李白은 辛辣하게 쓰아냈다.

『雲南五月中，頻喪渡瀘師。  
毒草殺漢馬，張兵奪秦旗。  
至今西洱河，流血擁僵屍。<sup>(33)</sup>』

이것은 天寶十年 楊國忠이 南詔國王을 치고자 益州長史 鮮于仲通에게 八萬의 精兵을 주어 討伐케 했으나, 瀘水에서 大敗했고, 十三載에는 다시 劍南留后 李宓에게 七萬의 大軍을 주었으나 西洱河에서 全滅했거늘, 楊國忠은 도리어 大勝했다고 거짓 報告하고 더욱 派兵해야 損失을 은폐하려 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通鑒에도 『國忠隱其敗，更以捷聞，益發中國兵討之，前後死者幾二十萬人。』(卷 217)이라 나타났다, 이러한 罪惡的인 征伐을 敢行하기 위하여 그들은 酷甚하고 殘虐한 徵發을 감행했던 것이다. 李白은 古風(其 三十四)에서 다음까지 痛憤하고 있다.

「羽檄如流星，虎符合專城。  
喧呼救邊急，羣鳥皆夜鳴。  
白日曜紫微，三公運權衡。  
天地皆得一，澹然四海清。  
借問此何爲，答言楚徵兵。  
渡瀘及五月，將赴雲南征。  
怯卒非戰士，炎方難遠行。

(32) 塞下曲(其三)

(33) 書懷贈南陵常贊府

長號別嚴親，日月慈光晶。  
 泣盡繼以血，心摧兩無聲。  
 困獸當猛虎，窮魚餌奔鯨。  
 千去不一回，投軀豈全生。  
 如何舞于戚，一使有苗平。」

楊國忠等이 저질러는 犯罪的인 戰爭에 의해 百姓은 生命과 平安을 잃을 뿐만이 아니다. 榨取의 重加와 生産의 低下로 인하여 社會는 破綻하게 마련이다. 通鑒에 있다. 『開元之前，每歲供邊兵衣糧，費不過二百萬。天寶之后，……每歲用衣千二十萬匹，糧百九十萬斛。公私勞費，民始困苦矣。』(卷 215) 『諸衛府兵自成丁從軍，六十而免，其家又不免雜徭，浸以貧弱，逃亡略盡，百姓苦之。』(卷 212) 杜甫는 兵車行에서 『漢家山東二百州，千村萬落生荆杞。縱有健婦把鋤犁，禾生隴畝無東西。』라 生産社會의 破滅을 嘆했다. 李白도 『陽和變殺氣，發卒騷中土，三十六萬人，哀哀淚如雨，且悲就行役，安得營農圃。<sup>(34)</sup>』라 지적했다.

이렇듯 嚴重하게 戰爭不義에 抗拒했고, 아울러 無辜한 百姓을 擁護했으나, 그렇다고 無條件하고 戰爭을 忌避하는 卑怯한 李白은 아니었다. 일찌기 劍術을 몸에 익히고 任俠精神에 넘치는 李白은 祖國守護와 正義의 聖戰에는 누구보다도 나서서 싸우기를 원했고 또한 남들에게도 싸우기를 독려했다. 「塞上曲」에서는 邊境을 平定하고 外侵을 防備한 戰功을 지극히 讚美하고 있다.

「大漢無中策，匈奴犯渭橋。  
 五原秋草綠，胡馬一何驕。  
 命將征西極，橫行陰山側。  
 燕支落漢家，婦女無華色。  
 轉戰渡黃河，休兵樂事多。  
 蕭條清萬里，瀚海寂無波。」

(34) 古風(其十四)

李白은 여기서 自衛戰爭의 勝利로 얻어진 平和로운 모습을 즐기려는 듯 보인다. 이러한 外敵防禦를 위해서는 積極 나서야 한다고 믿었던 李白은 「塞下曲」에서는 邊塞戰士들의 苦難과 英雄的인 戰鬥精神 및 護國精神을 強烈하게 나타내고 있다.

「五月天山雪，無花祇有寒。  
 笛中聞折柳，春色未曾看。  
 曉戰隨金鼓，宵眠抱玉鞍。  
 願將腰下劍，直爲斬樓蘭。」(其一)

「天兵下北荒，胡馬欲南飲。  
 橫戈從百戰，直爲銜恩甚。  
 握雪海上飡，拂沙隴頭寢。  
 何當破月氏，然後方高枕。」(其二)

「烽火動沙漠，連照甘泉雲。  
 漢皇按劍起，還召李將軍。  
 兵氣天上合，鼓聲隴底聞。  
 橫行負勇氣，一戰靜妖氛。」(其六)

李白은 「安社稷」「濟蒼生」을 위해 「護國防禦」의 戰鬥은 英雄的으로 遂行해야 한다고 믿었다. 特히 胡族 安祿山이 反逆亂動하자 李白의 憤怒는 冲天했다.

#### 4. 逆賊討伐과 悲運의 幕僚

唐王室의 腐敗와 暗黑政治는 그 悲慘한 結幕을 마침내 安祿山의 亂으로 표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銳利하게 일찍부터 豫告하고 警覺을 불러 일으켰던 李白은 더욱 焦燥했다. 그렇다고 나설수도 없는 몸, 또한 물러나 傍觀만도 할 수 없는 祖國愛에 몸 달던 李白은 激한 詩를 지었던 것이다.

『雙鵝飛洛陽，五馬渡江徼。  
 何意上東門，胡雛更長嘯。  
 中原走豺虎，烈火焚宗廟。  
 太白晝經天，頽陽掩餘照。  
 王城智蕩覆，世路成奔峭。  
 四海望長安，嘖眉寡西笑。  
 蒼生疑落葉，白骨空相弔。  
 連兵似雪山，破敵誰能料。<sup>(35)</sup>』

『安祿山の 무리들 승냥이 호랑이 같이 中原에 날뛰고, 唐나라 宗廟가 거센 불길에 탄다(中原走豺虎, 烈火焚宗廟)』 그리하여 『蒼生은 落葉같이 흐트러지고, 白骨은 하염없이 서로 울며 슬퍼한다. (蒼生疑落葉, 白骨空相弔.)』 그렇거늘 『그 누가 적을 무찌를까? (破敵誰能料?)』 하고 李白은 痛嘆하고 있다. 事實 官軍은 너무나 無能無力했다. 李白은 「猛虎行」에서는 다음같이 不平하고 있다.

『朝作猛虎行，暮作猛虎吟。  
 腸斷非關隴頭水，淚下不爲雍門琴。  
 旌旗繽紛兩河道，戰鼓驚山欲傾倒。  
 秦人半作燕地囚，胡馬翻銜洛陽草。  
 一輸一失關下兵，朝降夕叛幽薊城。  
 巨鼈未斬海水動，魚龍奔走安得寧。』

『官軍은 싸움에 질뿐만이 아니라, 玄宗은 讒言에 넘어가 部將을 處刑한 失策까지 겹치었으며, 顏杲卿의 衛兵이 아침에 敗하자 卒兵들은 背叛하여 敵地인 幽·薊城에 投降하더라. (一輸一失關下兵, 朝降夕叛幽薊城.)』

이렇듯 형편없는 官軍이기에 逆賊 安祿山の 胡族을 막지 못하고 長安까지 빼앗기고 玄宗이 蒙塵하고 百姓은 無辜하게 죽어야 했다.

(35) 經亂后將避地剡中留贈崔宣城

『炎涼幾度改，九土中橫潰。  
 漢甲連胡兵，沙塵暗雲海。  
 草木搖殺氣，星辰無光彩。  
 白骨成丘山，蒼生竟何罪。  
 函關壯帝居，國命懸哥舒。  
 長戟三十萬，開門納兇渠。  
 公卿如犬羊，忠讒醢與菹。  
 二聖出遊豫，兩京遂丘墟。』<sup>(36)</sup>

天寶 15年(756年) 6月 9日 潼關을 守備하던 哥舒翰의 20萬官軍이 全滅되고 叛軍으로 하여금 乘勝馬驅 長安으로 들게 하였다. 이에 玄宗이 離京했고, 公卿이 犬羊같이 도망쳤음은 그들 統治階級の 業報라 하겠으나 罪 없는蒼生은 왜죽어야 하나? 李白은 『백골이 산더미로 쌓였으니, 창생들 무슨 죄가 있는가? (白骨成丘山, 蒼生竟何罪.)』하고 憤懣했다. 이렇듯 國家를 敗亡에 몰아 넣은 責任을 李白은 辛辣하게 分析한 바 있다.

『賊臣楊國忠，蔽塞天聰，屠割黍庶。女弟肅寵，傾國弄權。九土泉貨，盡歸其室。怨氣上激，水旱荐臻，重罹暴亂，百姓力屈。』<sup>(37)</sup>

當時의 百姓들의 苦難을 李白은 다음같이 悽慘하게 그리며 同情했다.

『慘戚冰雪裏，悲號絕中腸。  
 尺布不掩體，皮膚劇枯桑。』<sup>(38)</sup>

아울러 같은 詩에서 『어느날 王道가 평온하게 베풀어져, 얼굴 띄고 날빛을 우켜러 보리 (何日王道平, 開顏靚天光)』하며 平和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그러나 玄宗은 百姓을 버리고 피난을 갔다. 이에 李白은 「蜀

(36) 註 29와 同

(37) 爲宋中丞請都金陵表

(38) 北上行

道難」을 지어 諷刺했다. 『아! 위태롭고 높기도 하다. 축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구나! 푸른 하늘에 오르기 보다 더 어렵구나! (噫吁戲! 危乎! 高哉! 蜀道之難, 難於上青天。』 『이렇듯 험난하거늘, 그대 먼길 따라 왜 왔는고! (其險也如此, 嗟爾遠道之人胡爲乎來哉!)』 『문노니! 서쪽으로 왔다가 언제 돌아갈 셈인가? (問君西遊何時還?)』 『몸을 추켜 서쪽 바라보며 길게 한탄한다(側身西望長咨嗟)』 爲政者, 統治階級을 批判한 李白은 逆賊들에게 強烈한 憎惡와 反擊을 주고자 했다.

『敵可摧, 旄頭滅。  
履胡之腸, 涉胡血,  
懸胡青天上, 埋胡紫塞旁。  
胡無人, 漢道昌。<sup>(39)</sup>』

『오랑캐의 창자를 짓밟고, 오랑캐의 피흐르는 강을 건너고, 오랑캐를 하늘에 매어달고, 오랑캐를 들판에 물어버리자』고 憎惡한 李白은 떨치고 나서서 逆賊을 치고자 했다.

『撫劍夜吟嘯, 雄心日千里。  
誓欲斬鯨鯢, 澄清洛陽水。<sup>(40)</sup>』  
  
『過江誓流水, 志在清中原。  
拔劍擊前柱, 悲歌難重論。<sup>(41)</sup>』

이렇듯 넘치고 끓는 愛國愛族의 情熱이 李白으로 하여금 마침내 永王 事件에 달려들게 했던 것이다. 原來 長安을 쫓겨난 李白은 安祿山의 亂이 일어나도 나서서 일할 길이 막혀있었다. 따라서 그는 絶望과 諦念에 빠진채 隱遁하고자 했다.

(39) 胡無人  
(40) 贈張翥鎬  
(41) 南奔書懷

『大盜割鴻溝，胡風掃秋葉。  
吾非濟代人，且隱屏風疊。』<sup>(42)</sup>』

그러자 永王 李璘이 李白에게 三次나 親書を 보내와 幕僚가 되기를 請했다. 「與賈少公書」에서 李白은 다음같이 말했다. 『白綿疾疲爾，去期恬退，才微識淺，無足濟時，雖中原橫潰，將何以救之？王命崇重，大總元戎，辟書三至，人輕禮重，嚴期迫功，難以固辭。』 平素부터 盡忠報國하고자 機會를 엿보던 李白은 마침내 나서기로 決心했다. 勿論 忠誠과 나라를 위하겠다는 一念에서 엿다. 그는 永王軍中에게 다음같이 읊은 바 있다.

「月化五白龍，翻飛凌九天。  
胡沙驚北海，電掃洛陽川。  
虜箭雨宮闕，皇輿成播遷。  
英王受廟略，秉鉞清南邊。  
雲旗卷海雪，金戟羅江煙。  
聚散百萬人，弛張在一賢。  
霜臺降羣彥，水國奉戎旃。  
繡服開宴語，天人借樓船。  
如登黃金台，遙謁紫霞仙。  
卷身編蓬下，冥機四十年。  
寧知草間人，腰下有龍泉。  
浮雲在一決，誓欲清幽燕。  
願與四座公，靜談金匱篇。  
齊心戴朝恩，不惜微軀捐。  
所冀旄頭滅，功成追魯連。』<sup>(43)</sup>』

『소망하는 바 逆賊의 旄頭星을 滅하고, 「功을 세우면 魯仲連 뒤를 따라 隱退하겠다. (所冀旄頭滅，功成追魯連)』는 생각은 李白의 本心이었 으리라. 또한 「永王東巡歌」에서 李白은 胡敵亂軍을 平定하고 忘君하겠

(42) 贈王判官時余歸隱廬山屏風疊

(43) 在水軍宴贈幕府諸侍御

다는 心情을 읊었다.

「三川北虜亂如旆，四海南奔似水嘉。  
但用東山謝安石，爲君談笑靜胡沙。」(其一)

「試借君王玉馬鞭，指揮戎虜坐瓊筵。  
南風一掃胡塵靜，西入長安到日邊。」(其十一)

그러나 悲運의 李白은 永王의 謀逆에 加擔했다는 罪로 夜郎으로 流配  
케 되었다. 李白으로서는 참으로 意外였다. 「萬憤詞，投魏郎中」에 역울  
한 李白의 心情이 잘 나타났다.

「海水渤潏，人罹鯨鯢。  
霧胡沙而四塞，始滔天於燕齊。  
何六龍之浩蕩，遷白日於秦西。  
九土星分，嗷嗷栖栖。  
南冠君子，呼天而啼。  
戀高堂而掩泣，淚血地而成泥。  
獄戶春而不草，獨幽怨而沈迷。  
兄九江兮弟三峽，悲羽化之難齊。  
穆陵關北愁愛子，豫章天南隔老妻。  
一門骨肉散百草，遇難不復相提攜。  
樹榛拔桂，囚鸞寵雞。  
舜昔授禹，伯成耕犁。  
德自此衰，吾將安棲。  
好我者恤我，  
不好我者何忍臨危而相擠。  
子胥烏夷，彭越醢醢。  
自古豪烈，胡爲此繫。  
蒼蒼之天，高乎視低。  
如其聽卑，脫我牢狴。  
儼辨美玉，君收白圭。」

親愛하는 妻子兄弟와 뿔뿔히 헤어져 서로 救援의 손도 마주 못잡는데다가, 세상이 『난새를 가두고 닭을 총애하는 가치가 전도된(囚鸞寵雞)』데다가 더욱 伍子胥나 彭越같은 忠烈之士가 悽慘하게 謀陷되어 죽어야 하다니, 참으로 눈에서 쏟는 피눈물이 땅에 엉키어 진흙을 빚었을 게다. 너무나 悽慘하고 冤痛한 李白, 自古로 豪傑들은 그러했다고 諦念하고 自慰를 하고자 함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이 억울한 李白이었다. 其後 李白은 夜郎으로 流配되어 가던 途中 大赦를 받고 歸還했으나 結局 그의 忠君愛國의 情熱은 功業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다.